사 설

비구니회관의 '가족도량' 선언

서울 강남 수서지구의 요지에 우람한 초현대식 사찰 겸 회관이 있다. 전국비구니스님들의 염원으로 탄생된 '법룡사'이다.

요즘 이곳에서는 이웃 주민들과 사찰이 호흡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 주민들에게 사찰을 개방했다. 기도와 정진 등 사찰의 고유 영역 이외에 어린이, 청소년, 주부, 그리고 이웃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경전, 문화, 수련, 상담 등 종합문화센터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이웃과 가족의 정신적 귀의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최근 들어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가족단위의 여가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 관음사 등 일부 사찰들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더욱 그렇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사경, 한문강좌, 레크리에이션, 교양강좌 같은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자녀의 인성교육이나 가족간의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온 가족 불자화'를 위해서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미래불자를 키우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몇몇 사찰의 관심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많은 사찰들이 나서야 한다. 부모와 자녀, 이웃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절실하다. 또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강사 양성도 필수적이다. 비구니회관 '법룡사'의 '가족전법도량' 선언이 보다 많은 사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해야

북한산과 수락산, 불암산을 터널로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혀졌다. 그 동안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졌고, 형식적으로 협의가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98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여러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자연환경을 지키는 유용한 법적 장치이다. 그런데 이 제도의 운영마저 무력화시키는 관행이 정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국토개발을 관장하는 건교부는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감독하는 환경부의 그 누구도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고, 부실하기 그지없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협의해줬는데도, 담당 공무원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이런 정부에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업무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감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소리가 드높다. 우리는 법 개정에 앞서 정부당국의 환경보전 의지를 다지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건교부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짐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수행 문화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그 규제치를 강화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3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미등록 조계종표방 사찰 2,300곳

호법부조사 무적승려운영 300, 타종단도 282곳

조계종, 종단 등록 촉구…불응땐 제재

승적도 없는 가짜승려가 종단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사찰을 운영하며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사찰이 3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184곳 사찰간을 조사한 것이어서 전국사찰을 모두 조사할 경우 1천여 곳이 넘는 사찰이 무적사찰일 것으로 추정돼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종지)는 8월27일 불교회관 1층에서 교구 호법국장단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부터 조계종을 표방하는 미등록 사찰 2,300여곳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1,184곳 응답사찰 중 어느 종단에도 가입하지 않는 무적사찰이 300곳에 이른다는 조사내용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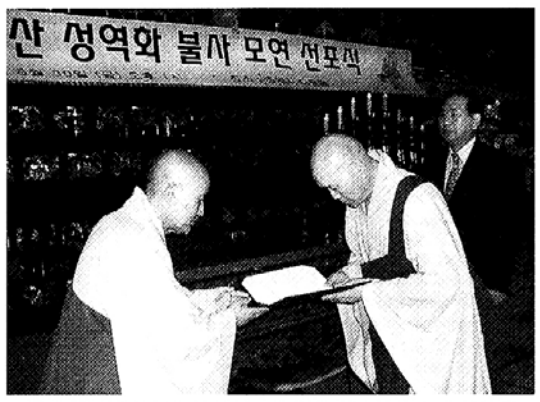
이 조사 내용에 따르면 조계종을 표방 미등록 사설사암은 여타 종단 282곳, 선학원 205곳, 조계종 승려 소유 172곳, 조계종 사찰 소유 77곳, 대각회 69곳, 분한신고(10년에 한 번씩 조계종 승려임을 총무원에 신고하는 것) 미필 승려 소유 33곳, 제적승려 소유 27곳, 소속종단 확인이 불가능한 사찰 소유 11곳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호법부는 9월부터 1차로 조계종 스님 소유 미등록 사설사암 200여곳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설사암의 사찰등록을 유도하고, 종단 사찰등록에 대한 당위성 확보, 사찰의 거래방지 및 경각심 고취, 종단명의 무단사용 방지 차원에서 이뤄진다.

이와 함께 300곳 무적사찰과 종단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여타 종단 282곳 사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지난해 9월 경찰청의 자료협조를 받아 4,000~5,000곳 사찰에 대한 조사를 실시, 조계종 표방사찰 2,300여곳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고, 12월까지 사찰의 주소 및 대표자, 조계종 여부를 확인했다. 호법부는 현재 1,184곳에 이르는 조계종 표방사찰의 재산 및 대표자 승적을 조사하고, 호법종무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해둔 상태다.

조계종은 1차 조사 후 미등록 사설사암에 대한 종단등록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종무행정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 · 왼쪽) 성광스님(화계사 주지)에게 추진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가람역사에 수희 동참하라"

조계종정 법전스님, '성역화 불사' 모연선포

조계종은 8월3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원로회의 의장 도원, 총무원장 정대, 종회의장 지하스님을 비롯, 중앙종무기관 부국장스님, 직할사암 주지,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불교 총본사 성역화불사 모연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종정 법전스님은 "이제 시절인연이 도래하여 조계종단 중심도장을 중창함이니 종도와 사부대중은 불법을 만고에 빛낼 대가람의 역사에 수희 동참하라"는 종정교시를 발표했다.

한편 조계종은 8월 27일 한 번 통화에 5천원이 적립되는 ARS 전화(060-700-0482)를 개통했다. 김원우 기자

법계구분 가사·휘장 시안제작

의제실무연 25일 3차 회의서 구체검토키로

조계종 의제실무연구회는 8월28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철우스님(계단위원회 위원)이 제안한 휘장 디자인 및 법계에 따른 가사 구분안과 복식연구가 김경숙씨가 제안한 휘장 디자인 안을 채택하는 한편, 이날 채택된 안에 따라 시안을 제작해 이달 25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검토키로 했다

철우스님은 이날 회의에서 휘장에는 법륜마크가 들어가도록 도안할 것과, 법계에 따른 가사구분은 연봉매듭(연봉우리 모양으로 단추 역할을 하는 매듭)의 색깔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경숙씨가 제안한 휘장 디자인은 타원형 안에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의미하는 원을 배치하는 모양으로, 법계에 따라 가사색, 녹색, 적색, 황색, 청색, 황금색으로 구분하도록 돼 있다.

한편, 가사의 재질과 색깔에 대해서는 일반 의류법에 따른 색과 소재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으며, 법계에 따라 가사 조수를 구분하는 문제는 다음 회의 때까지 제출키로 한 연구위원들의 연구안을 검토해 확정짓기로 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온가족이 부처님과 함께…

생태·문화기행·봉사 등 주말수련프로그램 개발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생태기행, 주말 농장, 문화기행,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태의 주말 수련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포교원은 오대산 월정사(9월 13~15일), 천마산 보광사(8월 30일~9월 1일)와 공동으로 주말 수련회를 시범실시(384호 1면 참조)하는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주말 수련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겠다고 최근 밝혔다. 포교원은 기존의 수련회 형식의 주말 프로그램 외에도 생태기행, 주말 농장, 문화기행, 복지기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식과 가족수련, 테마수련 등 대상별, 시기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교구본사 포교국장협 회장에 오심스님 선출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주최하는 교구본사 포교국장 워크숍이 8월 29~30일 공주 감사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14개 교구본사의 포교국장, 총무국장 스님들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주말수련회, 여름수련회 등과 관련한 포교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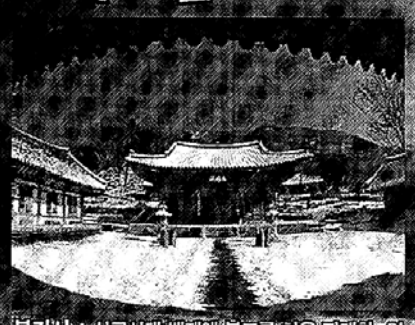
이어 포교국장 스님들은 교구본사 포교국장협의회 회장에 봉도사 포교국장 오심스님을 선출했으며, 교구본사별 주요 군법당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김재경 기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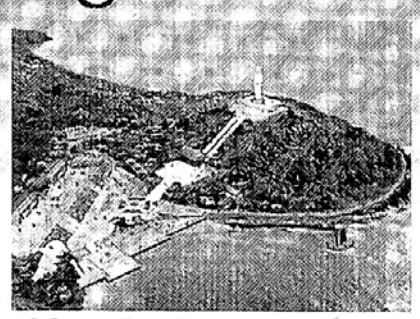
영광 법성포! 생각보다 가깝습니다.(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진품 명품 영광 법성포 굴비, 칠산 앞 바다 환상의 해안도로 일주, 백제불교의 최초 도래지 불갑사와 상사화"



불갑사 : 삼국시대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인도스님 마라난타존자가 남중국 동진을 거쳐 백제 침류왕 1년에 영광땅 법성포로 들어와 모악산에 최초로 사찰을 창건하였는데, 이 절이 제불사의 시원이요 으뜸이 된다고 하여 불갑사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상사화 : 꽃이 피어날 때는 잎이 없고 잎이 나올때는 꽃이 피지 않으므로 꽃은 잎을 생각하고 잎은 꽃을 그리워한다는 애틋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꽃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영광 법성포(영광 굴비):
법성포의 법은 불교를 성은 성인인 마라난타를 가리킨 것으로 인도승 마라난타가 중국 동진을 거쳐 백제에 불교를 전하면서 최초로 발을 디딘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특가
25,000원
(왕복교통비+3식제공+입장료+간식+봉사료 일체 포함)
일정 : 9/7~9/30(매일출발)

※현지사정으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체(30인 이상)시 단독 행사 가능 (출발장소 단독 출발)

● 출발장소

장 소	출 발 지	시 간
잠 실	너구리동상 앞	06:30
서울역	대우빌딩 앞	07:00
영등포	경방필백화점앞	07:30

전세버스 대여

코스 : 서울 → 영광법성포 → 백제불교최초도래지 → 해안도로일주 → 불갑사 → 서울

외도/해금강[1박 2일] 일시 : 9월 7일, 14일, 24일 회비 : 85,000원
코스 : 합천 해인사 - 부곡(숙박) - 외도/해금강

양지여행사(주) 02)3477-0533
※친목 단체 환영(문의)